

小續命湯 加減法 考察

-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²제한동의학술원
³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⁴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⁵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송지청¹, ² · 박진호³ · 엄동명⁴, ⁵ *

A Study on the Way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n Sosokmyeongtang

- Based on *Euilimchwalyo* and *Dongeuibogam* -

Song Jichung^{1, 2} · Park Jinho³ · Eom Dongmyung^{4, 5} *

¹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³Prof.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⁵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blication year(1608) of *Euilimchwalyo* is very closed to the year(1610) of *Dongeuibogam*, so several researches indicate that *Dongeuibogam* was influenced by *Euilimchwalyo*. We, authors have recently focused on the way to quote books in *Dongeuibogam* and found particular aspects in the way of quotation between *Euilimchwalyo* and *Dongeuibogam*.

Methods : 1. Comparing the contents of Sosokmyeongtang in quotation books between *Euilimchwalyo* and *Dongeuibogam*. 2. Tracing the origin of Sosokmyeongtang and comparing chief virtue, consist of herbal medicine, way of dose and making and the method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n Sosokmyeongtang.

Results : *Beijiqianjiyaofang* was the origin book that recorded Sosokmyeongtang but there was no method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fter Jin and Yuan dynasty, the books, which had Sosokmyeongtang, started to record the method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n Sosokmyeongtang. However, even though *Euilimchwalyo* also recorded the method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in Sosokmyeongtang such as other medical books, *Dongeuibogam* didn't keep that way to document up.

Conclusions : The fact that *Dongeuibogam* was influenced by *Euilimchwalyo* means 2 ways. The first is that *Dongeuibogam* was influenced by *Euilimchwalyo* directly. The second is that Heo Jun, who wrote *Dongeuibogam*, tried not to duplicate or follow *Euilimchwalyo* somehow.

Key Words : *Euilimchwalyo*, *Dongeuibogam*, Sosokmyeongtang, quotation

I. 序 論

어느 한 서적이 다른 서적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의학 서적에 있어서 서적의 구성방식, 즉 목차나 편제가 독특하여 다른 서적에서 그 체제를 그대로 본떠서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거나, 한 서적의 독특한 내용을 다른 서적에서 인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적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특히 『寶鑑』은 그 인용의 정확성으로 인해 다른 종합의서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寶鑑』의 引用방식을 살피는 일은 『寶鑑』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醫林撮要』(이하 『撮要』라 함)는 1608년에 출간되었으며, 『東醫寶鑑』(이하 『寶鑑』이라 함)은 1613년에 출간되었다. 두 책은 출간시기가 서로 가깝고 모두 종합의서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양자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특히 김홍균의 연구¹⁾가 주목할 만한데 그는 다양한 주제로 『撮要』와 『寶鑑』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寶鑑』은 『撮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撮要』와 『寶鑑』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던 가운데, 동일한 처방인데도 두 서적 사이에 수록되어 있는 양상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동일한 처방이 『撮要』와 『寶鑑』에 동시에 인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에 小續命湯의 경우를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어 몇 가지 사실을 논거를 통

해 밝히고자 한다.

II. 本 論

1. 『醫林撮要』 및 『東醫寶鑑』 小續命湯

먼저 『撮要』의 小續命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續命湯 中風汗藥也 治不省人事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蹇澀 及諸風自汗者 不宜重汗 不可輕用 上得效 下正傳方 ○一名 加減續命湯 隨證加減 而名各不同 見劑法下

防風 一兩半 ○一錢五分 麻黃去節 人參去蘆 黃芩 芍藥 防己 桂枝 川芎 杏仁 甘草 附子 童便煮 去皮
購 ○各一兩 ○七分 ○直指 玉機 局方 桂枝代肉桂 而附子五錢 每服三錢 云得效方 作桂皮 有熱 去附子 代白附子 每服四錢云

右作一服 水一盞半 薑五片 煎至一盞 溫服
○無汗惡汗 麻黃續命 麻黃 防風 杏仁 加一倍 鍼大陽 至陰 崑崙 舉踳 ○有汗惡風 桂枝續命 桂枝 芍藥 杏仁 加一倍 鍼風府 已上太陽經
○無汗身熱不惡寒 白虎續命 葛根一錢四分 桂枝 黃芩 加一倍 鍼陷谷 厲兌 陽明經 ○無汗身涼 附子續命 附子 加一倍 乾薑 加七分 甘草 加一錢二分 宜鍼隱白 太陰經 ○有汗無熱 桂枝續命 桂枝 附子 甘草 加一倍 鍼大谿 少陰經 ○六經混淆繫於少陽厥陰 肢節攣痛 麻木不仁 宜羌活連翹續命 續命八錢 加羌活 四錢 連翹 六錢 厥陰之井 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 絕骨 灸以引其熱 是鍼灸同法 象之大體也²⁾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 Rd, Iksan City, Cheonbuk, ROK
Tel: +82-63-850-6941 Fax: +82-63-842-4328
E-mail: haksan@wku.ac.kr
Received(22 April 2015), Revised(12 May 2015), Accepted(13 May 2015).

1)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①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比較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1). ② 김홍균. 『醫林撮要』의 「脇痛門」에 관한 소고 - 『醫林撮要』와 『東醫寶鑑』 比較考察 2 -.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2). ③ 김홍균. 『醫林撮要』와 『醫林撮要續集』이 『東醫寶鑑』의 형성에 끼친 영향.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2009. 15(2).

『撮要』에서는 小續命湯의 主治, 構成, 服用法은 『世醫得效方』(이하 『得效』라 함)을 인용하였고, 加減法은 『醫學正傳』(이하 『正傳』이라 함)을 인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仁齋直指方』, 『玉機微義』, 『太平惠民和劑局方』과도 비교하였다.

먼저 『撮要』와 『得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

2)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 8, 의림촬요 1.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85-86.

Table 1. Comparison of the name, chief virtue, prescription and way of dose of Sosokmyeongtang in 『Euilimchwalyo』 and 『Shiyidrxiaofang』

구분	『得效』 ³⁾	『撮要』
處方名	加減小續命湯	小續命湯
主治	治中風 不省人事 漸覺半身不遂 口眼喎斜 手足顛掉 語言蹇澀 肢體痿痹 神情昏亂 頭目眩重 筋脈拘攣 不能伸屈 骨節煩疼 不得轉側 亦治腳氣緩弱 久服之瘥 有病風人常服不可缺 以防啞啞	中風汗藥也 治不省人事 半身不遂 口眼喎斜 言語蹇澀 及諸風自汗者 不宜重汗 不可輕用 上得效 下正傳方
構成	麻黃 <small>去根</small> 人參 黃芩 白芍藥 川芎 甘草 杏仁 防己 桂枝 <small>各二兩</small> 防風 <small>一兩半</small> 附子 <small>炮 去皮臍 半兩</small> 有熱者 用白附子良 一兩半 以上系正方	防風一兩半 ○一錢五分 麻黃 <small>去節</small> 人參 <small>去蘆</small> 黃芩 白芍藥 防己 桂枝 川芎 杏仁 甘草 附子 <small>壹枚 去皮臍</small> ○各一兩 ○七分 ○直指 玉機 局方 桂枝代肉桂 而附子五錢 每服三錢 云得效方 作桂皮 有熱 去附子 代白附子 每服四錢云
服用法	右銜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三片 棗二枚 煎 不拘時候 溫服取汗 隨人虛實與所中輕重也	右作一服 水一盞半 薑五片 煎至一盞 溫服

撮要』에서는 『得效』를 인용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得效』에는 小續命湯이 없고 加減續命湯이 있으며, 『撮要』의 小續命湯은 이와 유사하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즉 『撮要』 小續命湯은 『得效』의 加減續命湯을 인용한 것이다. 『撮要』의 주지증은 『得效』의 주지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撮要』의 處方構成은 『得效』의 처방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炮劑法 등 일부 내용은 다르게 인용하였다. 『撮要』의 服用法 또한 대체로 『得效』와 다르지 않는데 다만 生薑과 大棗의 양을 다르게 하였고, 끓이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撮要』 小續命湯과 『正傳』 小續命湯의 내용을 살펴보면, 『正傳』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正傳』 小續命湯에는 모두 7종의 加減續命湯을 수록하였으며, 7종의 加減續命湯 가운데 白虎續命湯을 제외한 6종의 加減續命湯에서는 針法까지 제

시하고 있다. 그런데 『正傳』의 加減法에는 6종의 加減續命湯이 수록되어 있다. 『撮要』를 자세히 살펴 보면 白毫續命湯에 대한 처방 내용과 葛根續命湯에 대한 병증 서술을 누락시켜서, 두 처방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正傳』 내용에 근거하여 『撮要』 서술방식 으로 수정하여 이를 재구성해보면 ‘無汗身熱不惡寒 白虎續命 葛根一錢四分 桂枝 黃芩 加一倍 鍼陷谷 厲兌 陽明經’는 ‘無汗身熱不惡寒 白虎續命 加 石膏一錢四分 知母一錢四分 甘草七分 ○有汗身熱不惡寒 葛根續命’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寶鑑』의 小續命湯은 다음과 같다.

【小續命湯】 治卒中風 不省人事 喎斜 癱瘓 瘖瘡 麻木 眩暈 初中無汗表實等 及治一切諸風證 防風 一錢半 防己 肉桂 杏仁 黃芩 白芍藥 人參 川芎 麻黃 甘草 各一錢 附子炮 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入門 ○一方 無防己 附子 有當歸 石膏 有熱 用白附子 ○凡中風 六脈浮緊 風氣太盛 心火暴升 痰涎壅遏於經絡之中 宜用小續命湯 用附子 以其稟雄壯之資 而有斬關奪將之勢 能引人參 並行於十二經 以追復其散

3) 危亦林, 世醫得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431.

Table 2. Comparison of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Sosokmyeongtang in 『Euilmchwalyo』 and 『Yixuezhengchuan』

구분	『正傳』 ⁴⁾	『撮要』
加減法	中風無汗惡寒 麻黃續命主之	
	麻黃 防風 杏仁 依本方加添一倍 宜針太陽	
	至陰出血 昆侖 拳踭	
	中風有汗惡風 桂枝續命主之	
	桂枝 芍藥 杏仁 依本方加一倍 宜針風府 以	
	<small>上二證 皆太陽經中風也</small>	
	中風無汗身熱不惡寒 白虎續命主之	
	石膏一錢四分 知母一錢四分 甘草七分 依	
	本方加之	
	中風有汗身熱不惡風 葛根續命主之	
葛根一錢四分 桂枝 黃芩 依本方加一倍 宜		
針陷谷 刺厲兌 針陷谷者 去陽明經之賊邪 刺		
厲兌者 瀉陽明經之實也 以上二證 陽明經之		
中風也		
中風無汗身涼 附子續命主之		
附子加一倍 乾薑加七分 甘草加二錢一分		
宜刺隱白 去太陰之賊邪也 此證 太陰經中風		
也		
中風有汗無熱 桂附續命主之		
桂枝 附子炮 甘草炙 依本方加一倍 宜針太		
溪 此證 少陰經中風也		
中風六經混淆 系之於少陽厥陰 或肢節攣痛		
或麻木不仁 宜羌活連翹續命主之		
小續命湯八錢 加羌活四錢 連翹六錢		
古之續命 混淆無六經之別 今各分經治療		
又分經針刺 刺法 厥陰之井 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 絕骨 灸以引其熱 是針灸同法 象之		
大體也		

失之元陽 又引麻黃防風杏仁 發表開腠理以驅散其在表之風寒 引當歸 川芎 入血分行血養血 以滋養其虧損之真陰 或加石膏 知母 以降胃火 或加黃芩 以清肺金 若病勢稍退 精神稍復 輒當改用丹溪之法 以補氣血清痰之劑 以調養其本氣 此急則治其標 與夫標而本之之治也 ⁵⁾

『寶鑑』에서는 小續命湯의 主治, 構成, 服用法은 『醫學入門』(이하 『入門』)을 인용하였고, 加減法은 『撮要』와 마찬가지로 『正傳』을 인용하였다. 『入門』에도 小續命湯의 加減法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寶鑑』에서는 『入門』의 主治, 構成, 服用法만 인용하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寶鑑』의 주치증은 『入門』의 일부만 인용하였고, 일부 내용은 첨가하였으며, 構成에 있어서는 대개 『入門』의 내용을 따랐다. 그리고 服用法은 『入門』 보

4) 虞博. 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32-33.
5) 許浚. 精校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59.



Table 3. Comparison of the chief virtue, prescription and way of dose of Sosokmyeongtang in 『Donggeuibogam』 and 『Yixuerumen』

구분	『入門』 ⁶⁾	『寶鑑』
主治	治 卒暴中風 不省人事 漸覺半身不遂 口眼 喎斜 手足顛掉 語言蹇澁 肢體麻痺 精神昏亂 頭目 眩暈 痰壅筋攣 骨節煩疼 又治脚氣緩弱 及久病風人 每遇天 色陰晦節候 變更 宜豫服之 以防 瘖啞 如有六經見證 加減照依傷寒 無汗惡寒 合麻黃湯 有汗惡風 合桂枝湯 身熱無汗 合白虎湯 有汗 合葛根湯 身涼無汗 合古姜附湯 有汗 合古桂附湯 無此四證 少陰厥陰 肢節攣痛 麻木 用本方八錢 加羌活四兩 連翹六兩 爲丸服 亦好	治 卒中風 不省人事 喎斜 癱瘓 瘖瘂 麻木 眩暈 初中無汗表實等 及治一切諸風證
構成	防己 肉桂 杏仁 黃芩 芍藥 甘草 人蔘 川芎 麻黃 各一錢 附子五分 防風一錢半	防風一錢半 防己 肉桂 杏仁 黃芩 白芍藥 人蔘 川芎 麻黃 甘草 各一錢 附子炮 五分
服用法	姜棗煎服	右剉作一貼 入 薑三片棗二枚 水煎服

Table 4. Comparison of th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Sosokmyeongtang in 『Donggeuibogam』 and 『Yixuerumen』

구분	『正傳』 ⁷⁾	『寶鑑』
加減法	或六脈俱浮弦者 急宜以小續命湯表之 蓋風氣大盛 心火暴升 而痰涎壅遏於經絡之中 於斯時也 豈尋常藥餌而能通達於上下哉 故本方用附子 以其稟雄壯之資 而有斬關奪將之勢 能引人蔘輩 並行於十二經 以追復其失散之元陽 又能引麻黃防風杏仁輩 發表開腠理 以驅散其在表之風寒 引當歸芍藥川芎輩入血分 行血養血 以滋養其虧損之真陰 或加石膏知母以降胃火 或加黃芩以清肺金 看所挾見證 與夫時月寒溫 加減施治 病勢稍退 精神稍復 輒當改用丹溪之法 而以補氣補血清痰之劑 以調養其本氣而安 此急則治其標與夫標而本之之治也	○一方 無防己 附子 有當歸 石膏 有熱用白附子 ○凡中風 六脈浮緊 風氣大盛 心火暴升 痰涎壅遏於經絡之中 宜用小續命湯 用附子 以其稟雄壯之資 而有斬關奪將之勢 能引人蔘 並行於十二經 以追復其失散之元陽 又引麻黃防風杏仁 發表開腠理 以驅散其在表之風寒 引當歸川芎入血分 行血養血 以滋養其虧損之真陰 或加石膏知母以降胃火 或加黃芩以清肺金 若病勢稍退 精神稍復 輒當改用丹溪之法 以補氣血清痰之劑 以調養其本氣 此急則治其標 與夫標而本之之治也

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한편 『入門』에도 加減法이 수록되어 있는데, 『寶鑑』에서는 『入門』을 인용하지 않고 대신 『正傳』을 인용하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

하면 Table 4.와 같다.

『正傳』의 加減法에는 『撮要』에서 인용한 7종의 加減續命湯 내용뿐만 아니라 위 내용도 있는데, 『寶鑑』에서는 『撮要』에서 인용한 7종의 加減續命湯 대신 이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이는 加減續命湯

6)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570.

7) 虞搏, 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32-33.

法과는 다른 서술 방식인데, 小續命湯의 活套에 해당하며, 또한 加減續命湯에서 보이는 針法 또한 없다. 그러므로 『撮要』와 『寶鑑』에서 동일하게 『正傳』의 加減法을 인용하였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담고 있다.

2. 小續命湯 기재 서적 비교

『撮要』와 『寶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역대 서적에서 小續命湯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小續命湯이 처음 언급된 서적은 『備急千金要方』(이하 『千金』이라 함)이다. 『千金』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撮要』와 『寶鑑』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간행된 종합의서의 小續命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備急千金要方』(7C 중반)⁸⁾

小續命湯

治卒中風欲死 身體緩急 口目不正 舌強不能語 奄奄忽忽 神情悶亂 諸風服之皆驗 不令人虛方

麻黃 防己 崔氏 外台 不用防己 人參 黃芩 桂心 甘草 芍藥 芎藭 杏仁 各一兩 附子 一枚 防風 一兩

8) 『千金』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처방이 있다.

(1) 小續命湯 治卒中風欲死 身體緩急 口目不正 舌強不能語 奄奄忽忽 神情悶亂 諸風服之皆驗 不令人虛方 麻黃 防己 崔氏 外台 不用防己 人參 黃芩 桂心 甘草 芍藥 芎藭 杏仁 各一兩 附子 一枚 防風 一兩 生薑 五兩 上十二味 咬咀 以水一斗二升 先煮麻黃三沸 去沫 納諸藥 煮取三升 分三服 甚良 (王國辰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孫思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4.)

(2-1) 小續命湯 治中風冒昧 不知痛處 拘急不得轉側 四肢緩急 遺失便利 此與大續命湯同 偏宜產後失血 并老小入方 麻黃 桂心 甘草 各二兩 生薑 五兩 人參 芍藥 白朮 附子 防己 芍藥 黃芩 各一兩 上十二味 咬咀 以水一斗二升 煮取三升 分三服 古今錄驗無桂 名續命湯 胡洽 千金翼 同 (王國辰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孫思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4.)

(2-2) 治風歷年歲 或歌或哭 大笑 言語無所不及 宜服小續命湯方 麻黃 三兩 人參 桂心 白朮 各二兩 芍藥 甘草 防己 黃芩 芎藭 當歸 各一兩 上十味 咬咀 以水一斗二升 煮取三升 分三服 日三 覆取汗 (王國辰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孫思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4.)

이 중에서 후대 의서들에 기재된 小續命湯과 유사한 처방은 (1)의 小續命湯이다.

半 生薑 五兩

上十二味 咬咀 以水一斗二升 先煮麻黃三沸 去沫 納諸藥 煮取三升 分三服 甚良⁹⁾

특이한 것은 후대 방서에서는 생강이 복용법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방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2.2. 『太平惠民和劑局方』(1107년. 이하 『局方』이라 함)

小續命湯 卒暴中風 不省人事 漸覺半身不遂 口眼喎斜 手足戰掉 言語蹇澁 肢體麻痺 神情氣亂 頭目眩重 痰涎并多 筋脈拘攣 不能屈伸 骨節煩疼 不得轉側 及治諸風 服之皆驗 若治脚氣緩弱 久服得差 久病風入 每遇天色陰晦 節候變更 宜預服之 以防暗瘕

防己 肉桂 去粗皮 黃芩 杏仁 去皮尖 炒黃 芍藥 白者 甘草 炙 芎藭 麻黃 去根節 人參 去蘆 各一兩 防風 去蘆 一兩半 附子 炮 去皮臍 半兩

右除附子杏仁外 搗爲粗末 後入二味令勻 每服三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取一盞 去滓 稍熱服 食前 加棗一枚尤好¹⁰⁾

『千金』의 처방과 비교해 보면 生薑이 본방 구성에서 빠지고 복용법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千金』의 내용과 동일하다.

2.3. 『聖濟總錄』(1118년. 이하 『聖濟』라 함)

治中風昏昧 不知痛處 或拘急不得轉側 或四肢緩縱 遺失便利 小續命湯方

麻黃 去根節 先煎 掠去沫 焙 二兩 桂 去粗皮 三兩 防風 去又 一兩半 人參 芍藥 附子 炮 去皮臍 防己 甘草 炙 白朮 芍

9) 王國辰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孫思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4.

10) 太平惠民和劑局方.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22.

藥^{白者} 黃芩^{去黑心} 各一兩

右一十一味 剉如麻豆 每服五錢匙 水一盞半 生薑半分切 煎至八分 去滓空心 日午夜臥各溫服 要發汗 空腹并三服 如人行五里 用熟生薑稀粥投之 汗出慎外風¹¹⁾

『千金』의 처방과 비교해 보면 본방 구성에杏仁이 없고 白朮이 들어가 있다. 『局方』과 마찬가지로 生薑이 본방 구성에서 빠지고 복용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千金』의 내용과 동일하다.

2.5. 『三因極一病證方論』 (1174년. 이하 『三因』이라 함)

小續命湯 治卒中風欲死 身體緩急 口目不正 舌強不能語 奄奄忽忽 神情悶亂 諸風服之皆驗 不令人虛方

麻黃^{去節湯} 防己^{崔氏 外台 不用} 人參 黃芩 桂心 甘草^炙 白芍藥 芍藥 各一兩 杏仁^{一兩 湯去皮尖} 附子^{一枚 炮去皮臍} 防風^{半兩}

上爲剉散 每服四大錢 水一盞半 薑七片棗二介 煎七分 去滓 不以時服 取汗 隨人虛實與所中輕重 有人脚弱 服此 肉筆劑 得差 有風疹家 天陰節變 輒合服之 可以防暗 一云恍惚 加茯神遠志 骨節疼有熱 去附子芍藥¹²⁾

『千金』의 처방과 같은데 生薑이 본방 구성에서 빠지고 복용법에 들어가 있다.

2.6. 『仁齋直指方』 (1264년. 이하 『直指』라 함)

小續命湯 治中風諸風 迷仆涎潮 舌強語謇 或昏憤痿弛 或厥冷拘攣 不論表裏淺深 服之皆驗

11)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p.133.

12)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3.

麻黃^{去節} 人參 防己 官桂 黃芩 杏仁^{去皮尖 焙} 白芍藥 芍藥 甘草^炒 各一兩 防風^{一兩半} 附子^{炮去皮臍半兩}

上剉散 每服三錢 薑五厚片 棗二枚 水盞半 煎一盞 溫服 恍惚 加白茯苓 骨節疼煩疼 素有熱 去附子 倍芍藥 加竹瀝 大便秘 素有寒 去黃芩 加白朮附子 骨肉冷疼 加辣桂附子 嘔逆腹脹 加人參半夏 自汗 去麻黃 加芍藥 大便結熱 去附子 加枳殼大黃 痰多 加南星炮切數片 風虛 加當歸 渴 加栝蒌根 身疼 加秦芩 喘急 加炒桑白皮¹³⁾

『千金』의 처방과 같은데 生薑이 본방 구성에서 빠지고 복용법에 들어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증상에 따른 加減法¹⁴⁾이 수록되어 있다.

2.7. 『醫學發明』 (13C 초. 이하 『發明』이라 함)¹⁵⁾

小續命湯

麻黃^{去節} 人參^{去蘆} 黃芩^{去腐} 芍藥 炙甘草 川芎 杏仁^炒 去皮尖 防己 官桂 各一兩 防風^{一兩半} 附子^{炮去皮臍 細銼 半兩}

上除附子杏仁外 搗爲粗末 後入二味和勻 每服五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至一盞 去滓 稍熱服 食前

始治中風 不審六經之形證加減 雖治與不治無異也 開則灑然寒 閉則熱而悶 知暴中風邪 宜先以加減續命湯藥證治之

中風無汗惡寒 宜麻黃續命湯

麻黃續命湯 麻黃 防風 杏仁 依本方加一倍 宜針太陽經至陰出血 昆侖舉蹻

13)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56.

14) 앞으로 小續命湯加減法은 소속명탕에 명증변화에 따른 本草의 加減을, 加減續命湯法은 小續命湯을 중심으로 가감되는 본초에 따라 새로 명명되는 小續命湯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5) 李杲(1180~1251년)의 서적이므로 13세기 초에 출간된 서적으로 보았다.

中風有汗惡風 桂枝續命湯

桂枝續命湯 桂枝 芍藥 杏仁 依本方加一倍 宜針風府 此二證 皆太陽中風也

中風身熱無汗不惡寒 白虎續命湯

白虎續命湯 石膏 地毛一料中各加二兩 甘草 依本方加一倍

中風身熱有汗不惡風 葛根續命湯

葛根續命湯 葛根 桂枝 黃芩 依本方加一倍 宜針陷谷 刺厲兌 針陷谷者 去陽明之賊也 刺厲兌者 瀉陽明之實也 此二證 皆陽明中風也

中風無汗身涼 附子續命湯

附子續命湯 附子加一倍 乾薑加二兩 甘草加三兩 宜針隱白 去太陰之賊也 此一證 太陰經中風也

中風有汗無熱 桂枝附子續命湯

桂枝附子續命湯 桂枝 附子 甘草 依本方加一倍 宜針太溪 此一證 少陰經中風也

無此四證 六經混淆 系於少陰厥陰 或肢節攣痛 或麻木不仁 宜羌活連翹續命湯

羌活連翹續命湯

小續命八兩 羌活四兩 連翹六兩

上古之續命 混淆無經 今立分經治療 又分各經針刺 無不愈也 治法厥陰之井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絕骨 灸以引其熱 此通經引熱 是針灸同象 治法之大體也¹⁶⁾

『直指』에서와 마찬가지로 加減法이 수록되어 있는데, 『直指』와는 다른 加減續命湯法에 해당하는 내용이 더붙어 白毫續命湯을 제외하고는 針法도 수록하고 있다.

2.8. 『衛生寶鑑』 (1281년. 이하 『衛生』이라 함)

小續命湯 通治八風五痺痿厥等疾 以一歲為總 六經為別 春夏加石膏知母黃芩 秋冬加

官桂附子芍藥 又於六經別藥納 隨證細分加減 自古名醫 不能越此

麻黃去節 人參去蘆 黃芩去腐 芍藥 甘草炙 川芎 杏仁去皮尖 炒 防己 官桂 各一兩 防風一兩半 附子炮去皮臍 半兩

上十一味 除附子杏仁外 為粗末 後入二味和勻 每服五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至一盞 去滓 稍熱服 食前

凡治中風 不審六經之形證加減 雖治與不治無異也 內經云 腠理開則漸然寒 閉則熱而悶 知暴中風邪 宜先以加減續命湯藥證治之

若中風無汗惡寒 麻黃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麻黃防風杏仁一倍 宜針太陽經至陰出血 昆侖舉蹠

中風有汗惡風 桂枝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桂枝芍藥杏仁一倍 宜針風府

以上二證 皆太陽經中風也

中風無汗 身熱不惡寒 白虎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石膏二兩知母二兩甘草一兩

中風有汗 身熱不惡風 葛根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葛根二兩桂枝黃芩各一倍 宜針陷谷 刺厲兌 針陷谷者 去陽明之賊邪 刺厲兌者 瀉陽明之實熱

以上二證 皆陽明經中風也

中風無汗身涼 附子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附子一倍 乾薑加二兩 甘草加三兩 宜針隱白 去太陰之賊邪

此一證 太陰經中風也

中風有汗無熱 桂枝附子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桂枝附子甘草一倍 宜針太溪

此一證 少陰經中風也

凡中風無此四經六證混淆 系於少陰厥陰 或肢節攣痛 或麻木不仁 宜羌活連翹續命湯主之 於本方中加羌活四兩連翹六兩

上古之續命 混淆無別 今立分經治療 又分各經針刺 無不愈也 治法厥陰之井大敦 刺以通其經 少陽之經絕骨 灸以引其熱 此通經引熱 是針灸同象 治法之大體也¹⁷⁾

16) 張年順 等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李東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8-189.

17)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65.

Table 5. Consists of Sosokmyeongtang in Medical Classics

	麻黃	防己	人參	黃芩	桂心	甘草	芍藥	芎藭	杏仁	附子	防風	白朮	生薑	小續命湯 加減法	加減 續命湯法
千金	○	○	○	○	○	○	○	○	○	○	○		○		
局方	○	○	○	○	肉桂	○	○	○	○	○	○				
聖濟	○	○	○	○	桂	○	○	○		○	○	○			
三因	○	○	○	○	○	○	白芍藥	○	○	○	○				
直指	○	○	○	○	官桂	○	白芍藥	○	○	○	○		○		
發明	○	○	○	○	官桂	○	○	川芎	○	○	○				○
衛生	○	○	○	○	官桂	○	○	川芎	○	○	○				○
得效	○	○	○	○	桂	○	白芍藥	川芎	○	○	○				○
入門	○	○	○	○	肉桂	○	○	川芎	○	○	○				○
撮要	○	○	○	○	桂枝	○	白芍藥	川芎	○	○	○				○
寶鑑	○	○	○	○	肉桂	○	白芍藥	川芎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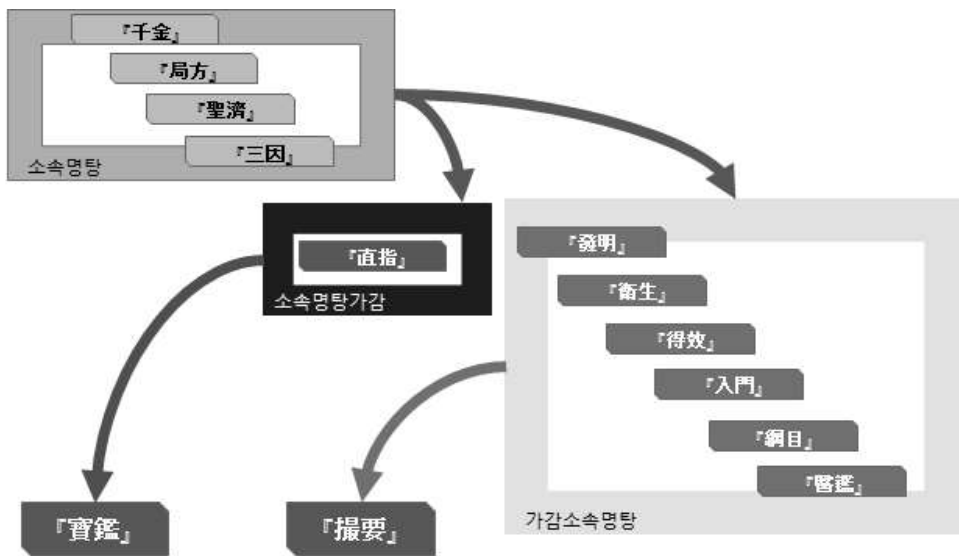


Fig 1. Relation of Sosokmyeongtang

『發明』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加減續命湯法에 대한 내용과 針法을 수록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절에 따른 加減法 또한 수록하고 있다. 『衛生』이 『發明』과 매우 흡

사한 이유는 아마도 『衛生』의 저자 羅天益이 『發明』의 저자 李東垣의 제자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小續命湯 처방구성 및 가감법 유무를 도표(Table 5.)와 그림(Fig 1.)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考 察

위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撮要』에서는 小續命湯을 『得效』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였는데, 『得效』에는 小續命湯이 없고 加減小續命湯만 있다. 『得效』의 加減小續命湯 主治, 處方構成, 服用法과 비교해 보면 『撮要』 小續命湯은 『得效』의 加減小續命湯을 인용하였으며, 또한 『正傳』의 加減法도 인용하였다.

2. 『寶鑑』에서는 『入門』 小續命湯의 主治, 處方構成을 인용하였고, 服用法은 『入門』의 내용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加減法은 『撮要』와 마찬가지로 『正傳』에서 인용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撮要』의 加減法과 『寶鑑』의 가감법은 그 내용으로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 小續命湯은 『千金』에 처음 수록된 이후, 주치증, 가감법, 약재의 용량 등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약물 구성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

4. 『千金』의 小續命湯 이후 元代 『得效』의 小續命湯에 이르기까지는 증상에 따른 加減法이 없었으며, 『直指』에서부터 처음으로 증상에 따른 加減法(小續命湯加減法)이 수록되어 있다.

5. 李東垣의 『發明』에 이르러서는 『直旨』와 다른 형태의 加減法 즉 加減小續命湯이 수록되어 있다. 『直旨』에서는 절명에 따른 加減法이 있으며 별도 처방명을 두지 않았는데, 『發明』에 이르러서는 六經에 따른 가감법과 더불어 가감방의 명칭도 별도로 명명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針法 치료도 수록하였다.

6. 『發明』 이후 의서들에서는 『直指』 형태의 가감법을 수록한 小續命湯과 『發明』 형태의 加減法을 수록한 小續命湯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Ⅳ. 結 論

小續命湯의 등장은 『千金』에서 시작되었는데, 『千金』의 小續命湯은 가감법 없이 中風을 치료하는

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金元時代 李東垣은 小續命湯을 『發明』에 기재하면서 증세에 따른 加減法을 첨부하고 小續命湯과 관련있는 명칭을 제시하였다. 이후 출간된 의서에 기재된 小續命湯은 대체로 『發明』과 유사하게 加減小續命湯을 기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김홍균 등은 『寶鑑』이 『撮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고, 대체로 이 주장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두 서적의 小續命湯을 비교해보면 『寶鑑』이 『撮要』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寶鑑』은 『撮要』에 기재된 내용대신 새로운 서적을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小續命湯은 『千金』에서 기재된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증상에 따른 加減法이 추가되었으며, 金元代에 들어와 補土派인 李東垣에 의해서¹⁸⁾ 加減小續命湯으로 내용이 확대된 이후 제자인 羅天益의 『衛生』이나 虞搏의 『正傳』 그리고 危亦林的 『得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처방에 대한 加減法은 처방의 운용의 확대를 의미한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방의 여러 운용법을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加減法이 기록을 하는 저자들에 의해 傳寫되었다는 사실은 누대에 걸쳐 그 효과가 의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시기를 거쳐 傳寫된 處方이 그 처방뿐 아니라 정형화된 加減法까지도 傳寫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小續命湯의 加減法 그리고 加減小續命湯의 기재 변천 및 傳寫의 경향을 살펴 그 정도를 살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寶鑑』 기재 小續命湯의 加減小續命湯 인용을 주목하였다. 『寶鑑』이 인용서적인 『正傳』과 『入門』에도 이와 같은 加減小續命湯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醫學綱目』 「中風」¹⁹⁾(1565년), 『古今醫鑑』 「中風」²⁰⁾(16세기 후반) 등에도 인

18) 실제로는 張潔古에 의해서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존하는 張潔古의 서적에서는 李東垣이 『衛生』에서 기재한 小續命湯 加減法을 상고할 수 없었다.

19) 樓英. 醫學綱目. 서울. 법민문화사. 2010. p.221.

20)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용되어 小續命湯의 加減小續命湯은 의서에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寶鑑』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寶鑑』이 小續命湯 加減法을 인용하면서 기존의 종합의서들과 달리 加減小續命湯을 기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음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寶鑑』의 저자 許浚은 『撮要』에서 다루지 않은 서적을 인용하여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寶鑑』 小續命湯의 처방 主治, 構成, 服用法은 『入門』의 내용을 인용하고, 加減法은 『正傳』의 내용을 인용하되, 『撮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둘째, 許浚은 『寶鑑』을 집필하면서 의도적으로 『撮要』의 내용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寶鑑』에서 中風方으로 小續命湯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撮要』 小續命湯의 加減小續命湯 내용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식을 통해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용방식은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한 형식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小續命湯의 加減小續命湯 인용방식을 살피는 일은 우회적으로 내용을 통해 서적간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살피는 일이라 판단하였다. 결국 『寶鑑』은 『撮要』 加減小續命湯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 의도적이었거나 아니었거나 『撮要』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1. Kim HK. Comparative investigation on both 『Eui Rim Chwal Yo』 and 『Dong Eui Bo Gam』.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 13(1). 김홍균.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比較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1).
2. Kim HK. A Study of Side Pain Chapter of 『Eui Rim Chwal Yo』.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 13(2). 김홍균. 『醫林撮要』의 「脇痛門」에 관한 소고 - 『醫林撮要』와 『東醫寶鑑』 比較考察 2 -.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2).
3. Kim HK. The Influence of Uirimchualyo & Its Sequel on Donguibogam - Focused on throat sickness -. J. of KIOM. 2009. 15(2). 김홍균. 『醫林撮要』와 『醫林撮要續集』이 『東醫寶鑑』의 형성에 끼친 영향.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15(2)
4. KIM SK edit.. *Hangukeuihakdaegye Vol. 8, Eulimchwalyo 1*. Seoul. Lyeogang Press. 1994.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 8, 의림촬요 1.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85-86.
5. Wei YL. *Sheyidexiaofang*.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2006. 危亦林. 世醫得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431.
6. Wu T. *Yixuezhengzhuang*. Beijing. Zhongyiguj Press. 2002. 虞搏. 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32-33.
7. Li C. *Yixuerumen*. Seoul. Goryeoeuihak. 1989. 李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p.570.
8. Wang GC edit.. *Tangsongjinyuanmingyichunashudacheng, Sun Simiao*.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9. 王國辰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孫思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4.
9. Taipinghuiminhejiju. *Taipinghuiminhejijufang*.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1985.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22.
10. Chen Y. 陳言. *Sanyinjyibingzhengfanglun*.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2007.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3.
11. Yang SY. *Renzhaizhizhifang*. Shanghai. Di'erjunyi Univer. Press. 2005. 楊士瀛. 仁齋直指方. 上海. 第二軍醫大學出版社.

2006. p.56.
12. Zhang NS etc, edit.. *Tangsongjinyuanmingyichunashudacheng, Li Dongyua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6. 張年順 等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李東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88-189.
 13. Luo TY. *Weishengbaojia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7.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65.
 14. Lou Ying. *Yixuegangmu*. Seoul. Bupinmunhwasa. 2010. 樓英. 醫學綱目.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221.
 15. Gong X. *Gujinyijia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7. 龔信. 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p.40-41.
 15. Zhao J. *Shengjizonglu*.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196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p.133.
 17. Heo Jun. Jeonggyodongeuibogam. Seoul. Hanmi Medicine. 2001. 許浚. 精校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559.